

(주소) 12283 /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전화) 031-579-6014 (팩스) 031-579-6041

배 포 일	2024. 10. 07.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 10. 08.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움직이는 천문과학전 《똑딱똑딱! 해, 달, 별》 개막		6	있음 (5매)	https://silhak.ggcf.kr	부 서 : 학예연구팀 사업담당 : 이성연(579-6010) 홍보담당 : 박한별(579-6044)

조선의 하늘로 떠나는 시간 여행

-2024년 실학박물관 움직이는 천문과학전 《똑딱똑딱! 해, 달, 별》 개막-

- ▶ 개관 15주년 맞아 차별 없는 문화향유의 확대를 위해 기획된 움직이는 천문과학전
- ▶ 실학자들이 천문인 해, 달, 별을 통해 시간을 탐구하는 전시
- ▶ 실학박물관과 남양주 관내 3개 기관 운길산역, 정약용도서관, 화봉초등학교에서 10월 10일부터 순차 개막
- ▶ ‘양부일구’, ‘혼천의’, ‘혼개통헌의’ 등 업선된 조선시대 천문과학유물 선보여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은 오는 10월 10일(목)부터 2025년 2월 23일(일)까지 움직이는 천문과학전 《똑딱똑딱! 해, 달, 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늘에 해와 달, 별을 주제로 천체와 시간을 다루는 관측 기기를 소개하는 움직이는 전시이다. 조선시대 별시계로 알려진 보물 ‘혼개통헌의’를 비롯해 해시계 ‘양부일구’ 송이영이 제작한 ‘혼천의’ 등 천문과학유물 1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실학박물관은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2020년 이래 4년 째 찾아가는 이동전시 ‘실학자가 간다’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0년 다산가람초등학교(다산 정약용), ▲2021년 다산한강중학교(담헌 홍대용), ▲2022년 다산한강초등학교 (다산 정약용, 담헌 홍대용), ▲2023년 다산가람초등학교(다산 정약용, 리뉴얼), ▲2023년 다산한강중학교(연암 박지원, 신규) 등 남양주시 일대 3개 학교에서 5회의 전시를 진행했으며, 관람인원은 총 20,874명에 달한다. 이번 기획전시도 총 4곳에서 나누어 진행된다. 실학박물관에서는 <해, 달, 별> 통합전시를 운영하며, 남양주시 관내의 3개 기관에 움직이는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해>는 남양주 화봉초등학교, <달>은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마지막으로 <별>은 다산신도시에 자리한 정약용도서관에서 전시된다. 또한 전시운영에 있어서도 ESG실천을 위해 포스터, 리플렛, 초청장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점자책을 개발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목점자책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와 점자를 함께 인쇄한 책

장소별 움직이는 전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 달, 별〉 실학박물관

전시기간 : 2024.10.10.~2025.02.23.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천문 관측 기기와 시간 측정 기기가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도 해, 달, 별 등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 별자리를 나타낸 혼상(천구의), 시간과 계절을 확인할 수 있는 앙부일구 등은 대표적인 과학 유산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실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2층에 해, 달, 별 관련 유물과 영상을 볼 수 있는 통합전시실이 설치된다. 전시 벽 한 코너에 움직이는 전시가 운영되는 남양주의 장소도 소개한다.

〈해〉 화봉초등학교

전시기간 : 2024.10.10.~2025.02.23.

고대 문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는 인류의 시간 측정과 역법의 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태양의 위치와 움직임은 농업,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리듬을 형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간 측정 기구들은 인류의 시간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해〉 전시는 조선의 해시계 기술을 보여주는 ‘앙부일구’와 현대성을 고려해 만든 ‘휴대용 앙부일구’를 선보인다. 밝은 미래의 태양과도 같은 아이들을 위해 남양주 진접의 화봉초등학교에 전시된다.

※ 교내에서 진행되는 전시로 일반 관람객 출입이 제한됩니다.

〈달〉 정약용도서관

전시기간 : 2024.11.02.~2024.12.31.

달의 주기적 변화와 움직임은 시간과 조수의 변화, 그리고 밤하늘의 밝기 등 다양한 자연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달력은 인류가 시간과 계절을 더욱 정밀하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 천문학자들은 달의 주기적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를 농업, 축제, 종교의식 등의 계획에 활용했다. 유물은 해와 달, 다섯 개의 주요 행성, 별 등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혼천의’가 전시된다. 〈달〉은 다산신도시 ‘정약용도서관’에 설치되어 많은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별〉 정약용도서관

전시기간 : 2024.10.10.~2025.01.07.

별은 고대부터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일상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단순한 자연 현

상을 넘어 자연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별과 시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천문학자들은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변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천문기구를 개발했다. 이러한 <별>을 관측했던 별시계 ‘혼개통헌의’와 ‘금동천문도’는 경의중앙선 ‘운길산역’에 전시된다. 운길산역 함기만 역장은 “운길산역에 오셔서 실학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해 보세요”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한편, <해, 달, 별> 전시와 연계하여 주말 상설 체험프로그램 '실~하게 놀자!'도 해, 달, 별에 관한 내용으로 새 단장하여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체험 종류에는 '해시계 팔찌 만들기(해)', '달 모양 파우치 만들기(달)', '나만의 혼개통헌의 만들기(별)' 등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필국 관장은 “이번 전시는 하늘의 무늬인 ‘해, 달, 별’의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연구하고자 했던 ‘시간’을 소개하는 전시”라며 “실학자들이 서양에서 들여온 천문기구와 직접 만든 천문도구를 통해 백성들의 생활에 기여하고자 했던 노력과 지혜를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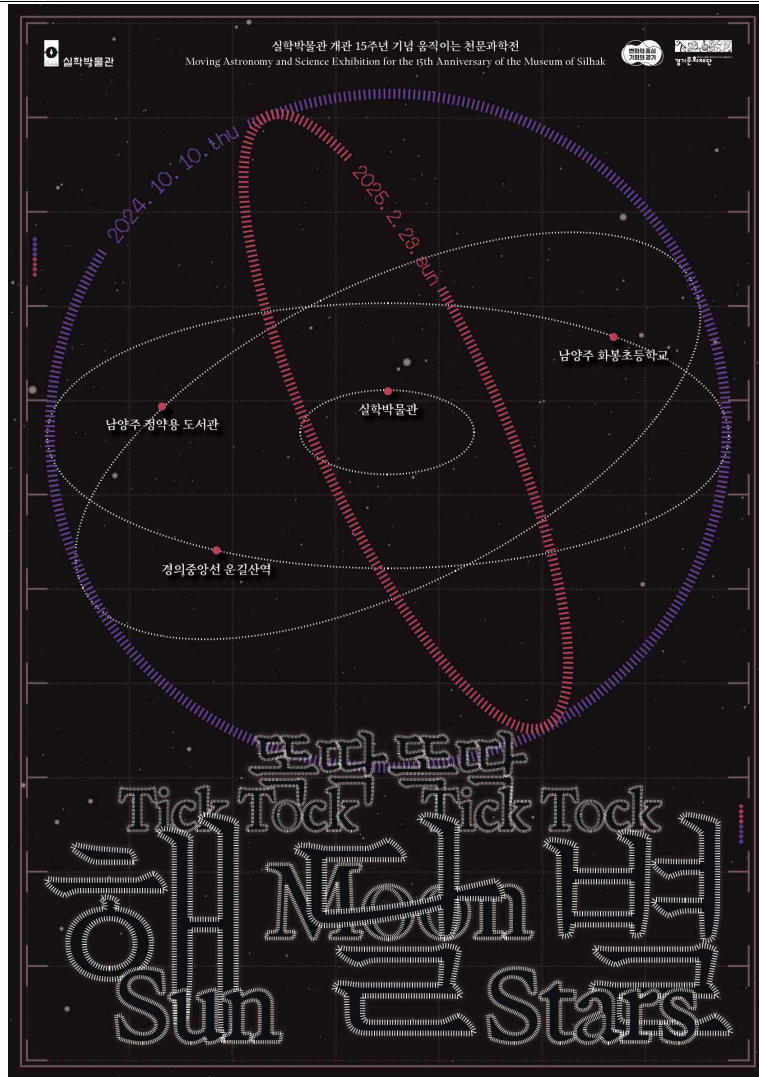
전시는 10월 10일(목) 실학박물관, 운길산역, 남양주 화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2일(토) 정약용도서관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실학박물관 누리집 (<http://silhak.ggcf.kr>)을 참고하면 된다.

〈전시 정보〉

- 전시명 : 2024년 실학박물관 움직이는 천문과학전
〈똑딱똑딱! 해, 달, 별〉 Tick tock Tick tock! Sun, Moon, Stars
- 통합플랫폼 전시
〈해, 달, 별〉 실학박물관
 - 전시기간 : 2024.10.10.~2025.02.23.
 - 관람시간 : 09:00~18:00(1월 1일, 설날 당일, 매주 월요일 휴관)
- 움직이는 전시
〈해〉 화봉초등학교 ※ 일반인 전시 관람은 제한됩니다.
 - 전시기간 : 2024.10.10.~2025.02.23.
- 〈달〉 정약용도서관
 - 전시기간 : 2024.11.02.~2024.12.31.
 - 관람시간 : 09:00~18:00(매월 1, 3째 금요일 정기 휴무)
- 〈별〉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 전시기간 : 2024.10.10.~2025.01.07.
 - 관람시간 : 05:30~23:50
- 주최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 협조 :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남양주 화봉초등학교

- ※ 붙임 1. 전시 포스터, 홍보 이미지
- 2. 대표 전시품 설명

붙임 1. 전시 포스터, 홍보 이미지




〈톡딱톡딱! 해, 달, 별〉 전시 포스터




다산한강초등학교 움직이는 전시 모습

붙임 2. 대표 전시품 설명


2-1. ‘해’ 대표 전시품

이미지	설명
	<p>양부일구 [仰釜日晷] 조선 후기 관상감 보물 복제 국립고궁박물관</p> <p>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입니다. 양부일구라는 이름은 ‘하늘의 해를 올려다보는 가마솥’이라는 뜻입니다. 양부일구에서 둥글게 들어간 부분을 시반면, 평평한 부분을 지평면이라고 합니다. 시반면과 지평면에는 가로와 세로로 된 선이 여럿 있습니다. 가로선은 계절을 알려 주는 선이고, 세로선은 시간을 알려 주는 선입니다. 시반면 안에는 뾰족한 침이 있습니다. 이를 ‘영침’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면 영침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 지금의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p>

2-2. ‘달’ 대표 전시품

이미지	설명
	<p>혼천의 [渾天儀] 조선 1669년 송이영 국보 재현 고려대학교박물관</p> <p>오래전부터 혼천의는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한 혼천설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혼천의는 주로 해와 달, 5개의 행성, 별을 관측하거나, 천문학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조선 후기 천문학자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분입니다. 송이영은 이 혼천의와 시계 장치를 연결해 혼천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혼천의의 가장 안쪽에는 둥근 지구의가 있고, 그 주위로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생각한 우주의 모습과 과학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p>

2-3. ‘별’ 대표 전시품

이미지	설명
	<p>혼개통헌의 [渾蓋通憲儀] 조선 1787년 유금 보물 실학박물관</p> <p>유금은 중국을 통해 전해진 서양의 천문시계 '아스트로라브'를 조선에 맞게 새롭게 바꿔서, 혼개통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물에는 1개의 원판에 혼천설과 개천설이 모두 표현되어 있어서 별의 위치와 시간을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을 보면 당시 조선이 수학과 천문학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p>